



자동차 Analyst 신윤철 yoonchul.shin@kiwoom.com

현대차(005380)

인도법인 IPO발 자사주 매입 조기 완료, 변동성 확대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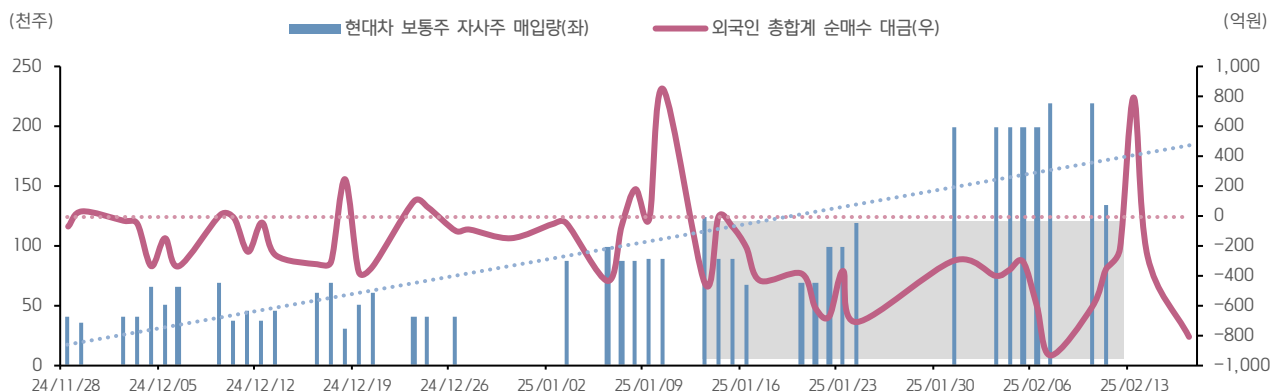
◎ 2월 11일자로 보통주 390만 주, 우선주 760만 주 매입 완료

- 현대차는 인도법인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한 주주가치 제고 목적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2024년 11월 27일에 공시함. 공시를 통해 제시됐던 취득예상기간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5년 2월 27일
- 그러나 설 연휴 직후인 1월 31일부터 현대차의 일간 자사주 매입량이 보통주 기준 20만 주 수준으로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확인. 1월 23일의 현대차 4Q24 어닝 미스 발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 지속과 함께 동반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순매도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량을 확대한 것으로 추측
- 현대차는 취득예상기간동안 보통주 3,906,545주, 우선주 합산 759,323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 예정임을 공시한 바 있음. 2025년 2월 18일자 후속 공시에 따르면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 보통주 3,906,545주(평균 취득가액 208,874원), 우선주 합산 759,323주 취득을 조기 완료했음을 공시함
- 동 기간 별도의 자사주 매입이 없었던 기아 대비 성공적으로 주가 하락세를 완화할 수 있었으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된 지금도 여전히 미국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향후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 기말배당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은 2월 28일, 전일 배당락에 유의

- 현대차의 배당락일은 2월 27일. 만약 자사주 매입이 예정대로 2월 27일까지 지속됐다면 배당락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로서는 완화 장치가 부재한 상황. 만약 2025년 주주환원 정책(TSR 35%)에 의거한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2월 중 개시된다면 변동성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는 이사회 결의 사항인 만큼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일정 파악 어려움
- 현대차, 기아의 기말배당 기준일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 공시에 따르면 기아는 기준일 2025년 3월 19일, 시가배당률 6.4%를 제시하고 있기에 현대차 배당락일부터 기아로 단기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 존재
- 당사의 현대차에 대한 투자의견 Outperform, 목표주가 245,000원 유지

1월 중순 이후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 확대 구간에서 일간 자사주 매입량을 10만 주에서 20만 주까지 확대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02월 18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